

**모두 함께 걸어온**



# **스포츠 인권의 오늘과 내일**

**| 2022년 인권살피미 활동 결과 보고 |**

**“모두 저마다의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길!”**

모두 함께 걸어온  
스포츠 인권의 오늘과 내일

# 모두 함께 걸어온 스포츠 인권의 오늘과 내일

| 2022년 인권살피미 활동 결과 보고 |

## 일러두기

-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클럽 팀의 합숙소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학생 선수들은 제각기 학교 내 기숙사, 구단에서 마련해 준 클럽하우스, 학교 근처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원룸 등에서 생활합니다. 본 책에서는 서술상의 편의와 개인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이를 모두 '합숙소'로 칭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 선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바꾸었고, 구단·팀·종목 이름은 편의상 ABC……로 칭했습니다.
- 본문 중간중간 나오는 미오는 미어캣을 형상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캐릭터입니다. 정의감이 넘치고 투철한 성격의 미오는 스포츠 현장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체육인을 더욱 안전하게, 체육계를 보다 공정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 및 전문 기관 연계, 체육계 현장 점검을 통한 인권 침해와 비리 및 실태 조사, 성폭력과 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인권살피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인권 침해 예방 활동과 실태 파악, 선수와 지도자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체육 현장을 좀 더 깊이 살폈습니다. 스포츠클럽 팀 34회, 국가대표 후보선수 33회,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14회(종목 42개), 장애 체육인 실태 조사 연계 12회 등 총 93회에 걸쳐 221명의 인권살피미가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마침내 발간된 《모두 함께 걸어온 스포츠 인권의 오늘과 내일》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체육계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체육인들의 의견을 체육계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인권살피미 운영을 통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정대하게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육계의 ‘인권’과 ‘공정’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체육인을 더욱 안전하게, 체육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한 해 활동을 갈무리하여 발간하는 이 책이 체육계와 체육인들의 이해와 신뢰를 더욱 높이는 밑거름이 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체육 환경을 만드는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이 은 정

|프|로|로|그|

## 스포츠 인권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과 장벽

### 행복한 학생 선수들

“스타트 라인에 서면 약간 쿵쿵거리고 떨려요. 질주하면서는 희열도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 같아요.”

육상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장인 예천스타디움. 고등학교 1학년인 김하늘 학생 선수가 미소 띤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타트 라인에 선 하늘의 기분 좋은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수 생활을 시작한 하늘은 현재 본인 주 종목에서 랭킹 1위라고 합니다. 타고났느냐는 질문에 “노력했어요”라고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물론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무릎 부상 때문에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해 좌절한 적도 있고,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코치 선생님이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트랙 안에 들어서면 설레고 행복하니까요.

“감독님을 만난 건 제게 행운이었어요. 감독님은 제 인생을 변화시켜 준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저도 제가 잘하는 줄 몰랐는데, 저를 믿고 뛰게 해 주셨어요. 덕분에 실력도 늘었고, 유소년 대표로도 뽑혔어요.”

A구단 소속인 이초롱 학생 선수는 ‘감독님 자랑’에 신이 납니다.

“경기장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감독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독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이 길도 있다’라며 스펙트럼을 넓혀 주셨어요.”

각종 편의 시설을 고루 갖춘 합숙소는 2인1실이라 쾌적하고 안락합니다. 외출과 외박, 핸드폰 사용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단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은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협의해서 만들었고, 잘 지켜집니다. 그러니 선후배 위계질서의 부작용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율 안에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든 감독님 덕분”이라고 합니다. 초롱은 행복한 선수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학생 선수가 하늘과 초롱처럼 행복하게 운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살피미가 학생 선수들 곁으로 달려가 살피고, 듣고, 들여다봤습니다.

### 현장을 살피고 크고 작은 목소리를 듣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체육계 현장의 인권 침해 조사, 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

영’ 조항에 따라 2021년부터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감시관’이라는 명칭이 다소 권위적이라는 체육계 목소리를 반영해 ‘체육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체육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인권살피미’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격 활동을 앞두고 올 3월 30명의 인권살피미를 위촉했습니다.

인권살피미 중에는 ‘선수는 행복해야 성적이 오른다’라는 사실을 체득한 전직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지도자의 폭력이 트라우마로 남아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며 스스로를 치유했다는 선수 출신의 스포츠 인권 강사도 있으며, 전직 국가대표 선수인 장애인 체육인도 있습니다. 또한 선수 출신의 대학교수, 변호사, 상담사, 해설위원도 있고, 현역의 선수와 지도자도 있습니다.

성장 배경이나 본업은 저마다 다르지만, 마음속에 품은 소망은 모두 같았습니다. 훈련장과 합숙소를 꼼꼼히 살피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이 땅의 모든 학생 선수와 지도자가 행복하게 운동하고 가르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권살피미 활동은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강원,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10개 대회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데 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 15개 시군구의 스포츠 현장을 방문해 좀 더 심도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 장장 7개월간 2300여 명의 학생 선수와 지도자를 만나다

우선, 2022년 6월부터 스포츠클럽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스포츠클럽을 살폈습니다. 프로 구단 산하 U-18팀인 남자 고등부 축구 21개 팀, 여자 고등부 축구 11개 팀, 고등부 야구 8개 팀 등 총 40개 팀을 방문해 12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를 만나 고충을 듣고, 그들이 생활하는 합숙소와 훈련장을 살폈습니다.

남자 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학교 내 기숙사, 구단에서 마련해 준 클럽하우스, 연립주택 등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자 축구 선수들 합숙소는 학교 내 기숙사입니다. 반면, 야구 선수들은 대부분 집이나 학교 근처 원룸에서 각자 생활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생활하는 합숙소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훈련장은 야구 클럽 중심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야구 클럽은 모두 2020~2021년에 창단하거나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신생 팀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넘어야 할 산도 높고 건너야 할 강도 깊기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산적한 문제 가운데 학생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장을 우선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이던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장 방문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땀 흘리며 훈련하는 필드하키 외 33개 세부 종목 11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종목별 최우수 선수들이 모인 만큼 훈련장은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만큼 고통도 컸습니다. 운동 자체가 힘든 데다 잘해야 한다

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해져 마음의 병을 앓는 선수도 많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눈물 흘리는 학생 선수들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축제의 한마당 전국체육대회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했습니다. 대표 선수 선발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경기는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혹시라도 편파 판정에 마음 다친 선수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경기 전후 선수와 지도자 모두 극도로 예민한 상태임을 감안해 최대한 조심하며 진행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몇몇 열악한 경기장 시설과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한편, 2022년 인권살피미 활동의 또 한 축은 ‘지도자 인권’에 대한 살핌이었습니다. 2019년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문제가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늘 학생 선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스포츠계의 약자는 학생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도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선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 상담은 많이 했는데, 거꾸로 제 이야기를 하려니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충을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며 어색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행복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지도자는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고충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 갖가지 장애물과 거대한 장벽

본문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했습니다.

제1부에서는 학생 선수들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편안히 쉬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싶은 합숙소, 맘껏 던지고 힘껏 달리고 싶은 훈련장,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학습권·운동권 보장, 그리고 학생 선수들을 가장 애태우는 핸드폰 제한과 관련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의 자긍심과 압박감, 전국체육대회의 땀방울과 환호, 그 속에 드리운 그림자에 대해서도 짚어 봤습니다.

제2부에서는 학생 선수와 지도자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장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선수 시절 일상적으로 맞고 육을 들으며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겼으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어서 아직도 치유 중입니다. 그래서 모두 ‘내가 겪은 상처를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며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공부합니다. 인권살피미가 만난 지도자는 대부분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장에는 아직도 신음하는 학생 선수가 많았

습니다. 지도자나 선배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정서적 폭력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선수도 많고, 훈련 중 지도자의 과도하고도 반복적인 터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는 선수도 있으며,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심하게 앓고 있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앞에 가로놓인 장벽도 그 단단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도자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약 만료일 4~5개월 전부터는 정신이 판데가 있어 학생들 지도에 충실할 수 없다”고 무거운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고용 불안은 지도자들의 왜곡된 업무 확장을 불러일으킵니다. 학생 선수들과 함께 기숙하며 야간 당직을 서는 일은 기본입니다. 팀 버스 운전을 하는 지도자도 많습니다. 학교와 훈련장을 오가는 하루 2~3시간의 운전은 물론 장거리 대회에 참가할 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주 6일 근무가 현재 지도자의 업무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지도자도 많습니다. 연차휴가나 여름휴가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를 거부한다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밍보이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모두 저마다의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길

“그동안 운동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체육관에서 훈련할 때 보면 아이들 다 울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박한결 학생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한마디 보태자 이내 흐느낍니다.

“저는 매번 방학이 고비였어요. 방학 때는 학교에 안 가니까 오전부터 운동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일상이 너무 끔찍했어요. 특히 여름방학에는 아침에 들리는 매미 울음소리가 정말 싫었어요. 매미가 울면 운동하러 가야 하니까요.”

이 땅의 모든 학생 선수가 한결처럼 울면 좋겠습니다. 운동이 힘든 이유로만 울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 그 자체로만 힘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숨이 차기 때문입니다.

학생 선수와 지도자가 본인들만의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도록 거대한 장벽을 깨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단단한 장벽이라 부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거대한 장벽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을 만들어 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벽이 거두어진 그라운드에서 각자의 장애물을 넘어선 우리 학생 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 모두 힘차게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 모든 지도자가 지도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날을 앞당기는 데 이 작은 책이 보탬이 되기를 감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활동의 한계에 대해 밝혀 둡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방문한 해당 팀(종목) 선수와 지도자 전원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웠고,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 책에 담긴 내용보다 더 아픈 선수, 더 참혹한 지도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다 담을 수 없어 가장 시급한 내용을 선별했다는 점도 밝혀 둡니다. 함께 응원하면 좋을 몇몇 사례를 ‘미오가 응원해요!’ 안에 정리했습니다. 좋은 사례가 훨씬 많지만 이 역시 지면 한계상 다 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선뜻 마음을 열고 아픈 이야기를 들려준 학생 선수 여러분, 합숙소 방을 기꺼이 상담실로 내주고 꺾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아 준 지도자 여러분, 없는 시간을 쪼개 달려와 도와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발간사 | 체육인을 더욱 안전하게, 체육계를 보다 공정하게 · 5

프롤로그 | 스포츠 인권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과 장벽 · 7

## 제1부 넘어야 할 장애물

- ▶ 극기 훈련장 같은 합숙소 · 20
- ▶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 펜스를 치고 걷고 · 29
- ▶ 솔로몬의 지혜가 간절한 학습권·운동권 보장 · 36
- ▶ 핸드폰과 경기력의 상관관계 · 45
- ▶ 자긍심과 압박감이 벌이는 마음속 전쟁 · 51
- ▶ 땀방울, 환호, 그리고 그림자 · 62

## 제2부 무너뜨려야 할 장벽

- ▶ “좋은 선생님 한 분 계시면 좋은 선수 10명이 나와요” · 72
- ▶ 현재 진행형인 지도자들의 다양한 폭력 · 76
- ▶ ‘선후배 위계질서’라는 괴물 · 84
- ▶ “두려워서 신고 못 해요” · 89
- ▶ ‘멀티플레이어’ 강요받는 지도자의 오늘 · 95
- ▶ 지도자의 내일을 열어 줄 ‘표준계약서’ 도입 · 100

에필로그 | 우리 모두 흙과 물과 바람과 햇볕이 되어 · 107

인권살피미 소개 · 111



## 제1부

# 넘어야 할 장애물

장벽이 거두어진 그라운드에서  
각자의 장애물을 넘어선 우리 학생 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  
모두 힘차게 나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 극기 훈련장 같은 합숙소



### 돌봄 없는 원룸 생활

인권살피미가 살펴본 여자 축구 11개 팀 선수는 모두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여자 축구는 선수 확보가 매우 어려워 현재 전국에 12개 팀밖에 없습니다. 팀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학생 선수들이 타지에서 올 수밖에 없어 합숙소 운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남자 축구는 21개 팀 중 창단 때부터 합숙소를 운영하지 않는 팀, 2021년부터 합숙소를 폐지한 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숙소를 운영합니다. 기업 구단 산하 남자 축구 팀 합숙소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팀들의 합숙소는 개선할 점

이 많습니다. 학교 기숙사를 사용하는 여자 축구 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편, 야구 팀들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학교 연계형 팀이라서 교내 기숙사를 사용하는 팀과 방송통신고에 학적을 두고 아파트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팀을 제외하고는 학생 선수 대부분 집에서 통학하거나 학교 근처 원룸에서 생활합니다.

생업을 포기한 아버지나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원룸에서 생활하는 학생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 홀로 지냅니다. 아직 미성년인 청소년이라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보호자의 돌봄 없는 원룸 생활은 소수 학생 선수들이 음주나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들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점심과 저녁은 학교와 팀에서 해결해 주지만, 아침은 굶거나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입니다. 고른 영양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혼자 끄끙 앓으며 견뎌야 합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약 2주간 묵는 합숙소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인1실인 경우가 많아 합숙소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학생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합숙소가 대부분 유흥가의 모텔이나 호텔이어서 그다지 좋은 외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 타인과 24시간을 공유하는 끔찍한 삶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학생 선수들 역시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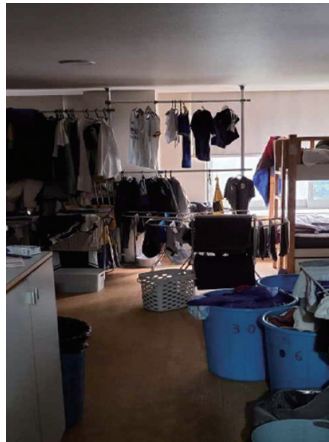
“저는 잘 웃고 명랑한 편이에요. 하지만 가끔 혼자 마음을 추스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방에서 12명이 생활하다 보니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여자 축구 선수인 정아름 학생은 합숙소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개인 공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혼자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 그럴 수 없으니까요.

“이기는 상황에서 마지막 휘슬 소리가 들리면 소름이 돋고 짜릿



▲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어 이불로 만든 가림막



▲ 환풍기도 없는데 잡동사니는 가득

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축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최빛나 학생은 B구단 소속 선수입니다. 빛나 역시 합숙소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빛나와 그 친구들은 침대 옆에 이불로 가림막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만, 특히 감수성 예민하고 섬세한 사춘기 청소년은 가끔이라도 혼자 있어야 합니다. 타인과 어울리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시공간에 들어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타인과 24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10



▲ 도무지 '개인'이 존재하기 어려운 탁 트인 공간



대 청소년에게는 너무 가혹한 삶입니다.

### 추위도 더위도 아플도 참아야 하는 극기 훈련장, 합숙소

더 열악한 합숙소도 많습니다. 한 방에서 6명 이상 생활하는 팀도 6개나 됩니다. 한 팀은 무려 27명(U-15팀 선수 포함)이 원룸처럼 뽕뽕된 곳에서 생활합니다. 짧게는 3년, 중학교 때부터라면 장장 6년을 도무지 개인이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합숙소 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C구단 합숙소는 보일러가 고장 나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얼른 수리해야 할 텐데 어찌 된 일인지 학생 선수들을 한 방으로 이사시킵니다. D구단 합숙소는 냉난방 조절이 안 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이곳도 어찌 된 일인지 지도자 방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다행히 지도자들과 사이가 좋아 학생 선수들은 덥고 추울 때 지도자 방으로 피신하고, 지도자는 이들을 반깁니다.

한편, 건물 몇 동을 빌려 합숙소로 사용하는 E구단 학생 선수들은 툭하면 전기가 나가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각자 침실에서 나와 거실 공간에서 다 같이 생활합니다. 이곳도 어찌 된 일인지 전기가 툭하면 나가는 이유를 찾아 고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도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

을 못 합니다. 거실에 에어컨을 켜고 다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F구단 합숙소는 안에 환풍기가 없는 데다 빨래, 운동화, 운동 장비, 쓰레기통 등 온갖 물품을 들여놓아 곰팡이, 모기, 벌레 등이 서식하고 있어 호흡기 환자가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인 데다 청결 관리 부족과 환풍기 부재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여기도 어찌 된 일인지 환풍기를 설치하거나 청결 교육을 하지 않는 듯합니다.

합숙소는 극기 체험장이 아닙니다. 추위도 참고 더위도 참고 아파도 참아야 하는 극기 체험장은 재미로, 추억 만들기로 일생에 한두 번 가는 곳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 슬하를 떠난 10대 청소년들이 3년 내내 머물 곳이 결코 아닙니다.

“미오가 응원해요!”



### 인권 침해 없는 건강한 합숙소

A구단 학생 선수들은 합숙소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합숙소 생활로 인한 인권 침해는 거의 없고, 선수들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합숙소에서 생활했어요. 그때는 12인1실이다 보니 방이 늘 지저분했어요. 물건이 섞이고 분실 사고도 있는 등 몹시 불편했죠. 현재는 2인1실이라 쾌적하고 안락해요. 충전기와 전등을 각자 사용할 수 있고, 에어컨이 잘 가동돼 여름에도 시원해요. 또 식당이 바로 아래에 있어 편리해요. 음식도 너무 맛있죠! 냉온탕 샤워실도 있어서 피로를 금세 풀 수 있어요.”

시설 등 환경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구단의 전폭적인 자원과 세심한 관리 덕분입니다.

“외출이나 외박, 핸드폰 사용에 제한이 없고, 선후배 관계도 좋아요. 시간 약속 엄수 등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맨 처음 어겼을 때는 독후감 작성, 다시 어기면 핸드폰 제한, 그다음은 훈련 제외, 마지막은 지도자와 의논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요. 감독님과 코치님, 선수들이 다 함께 정했기 때문에 잘 지켜요.”

지도자가 바뀌면서 선수들의 자율성 보장, 체계적인 훈련, 선진적인 지도 방식, 스태프 미팅 정례화 등 팀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간 신뢰도를 높이고, 선수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안에서 책임지게 하며, 지도자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차분히 설명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지도합

니다.

구단의 전폭적 지원, 지도자의 건강한 마인드,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성실한 선수들. 삼위일체가 이뤄 낸 2022년 하반기 이 팀 성적은 최상위권입니다.

### “합숙소를 폐지한 뒤 팀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학생 선수들의 인권 침해는 대부분 훈련장이나 합숙소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합숙소는 폐쇄적인 환경, 왜곡된 위계질서로 인한 부작용, 사생활 노출 등으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더 크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 선수들의 합숙소를 과감히 없앤 팀이 있습니다. 바로 G구단입니다.

G구단 학생 선수들은 2021년부터 합숙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장단점을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학생들이 합숙소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요. 훈련을 마치고 나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축구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고요. 지도자들 역시 합숙소 운영에 따르는 각종 잡무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팀원 간의 응집력이 약해진다고나 훈련량이 부족해진 점 등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 채 2년이 안 돼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팀 분위기는 훨씬 밝아졌습니다.”

### “합숙소 없는 지금 시스템에 만족해요!”

H구단 산하 팀은 창단 때부터 아예 합숙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니 합숙소 생활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학생 선수들은 제각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뒤 정해진 시간에 훈련장으로 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에 충실하고, 훈련장에서는 운동에 집중합니다. 스카우트할 때 학생 선수와 학부모에게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조힘찬 학생 선수가 씩씩하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훈련은 월, 화, 목, 금 2시간씩 일주일에 네 번 해요. 훈련장이 멀어 좀 불편하고 다른 팀에 비하면 훈련량이 적은 편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로 입단한 선수도 2명이나 되거든요. 저는 지금 시스템에 만족합니다!”

##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 펜스를 치고 걷고



### 관리 감독과 지원 필요한 스포츠클럽 신생 팀

2022년 현재 스포츠클럽 고등부 야구 팀은 8개입니다. 모두 2021년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을 앞두고 2020~2021년에 창단하거나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신생 팀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사설 클럽 형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 필요한 규제나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클럽 창단 시 필요한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창단 후에는 엄격한 관리 감독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니다. 인권살피미가 살피본 고등부 야구 8개 팀 모두 이제 막 시작 단계라 넘어야 할 산도 높고 건너야 할 강도 깊기만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문제입니다. 학교 운동부 팀은 창단 시 협회, 학교, 프로 구단 등에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 팀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자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번듯한 훈련장을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래 운동장에서 공을 던지는 일은 다반사이고, 비라도 오면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전용 훈련장 부재는 우수한 성적을 내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저조한 성적은 선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선수들 회비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팀에 이는 다시 재정적 자립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재정 문제, 선수 확보, 기타 다양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학생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 훈련 시작 전 벌써 지쳐 버리는 학생 선수들

A팀은 학교 연계형 클럽입니다. 선수들 학적을 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지요. 낮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 땅이 고르지 못하고 콘크리트 계단이 가까이 있어 잔부상이 잦은 운동장

감독이 사비로 만든 근처 하우스 안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땅이 고르지 못하고 콘크리트 계단이 가까이 있어 훈련을 하다 보면 잔부상이 잦습니다. 부상 염려 때문에 마음껏 뛰지도 던지지도 못합니다. 운동장 한쪽에 라커룸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마련해 두었는데, 전기 공급이 안 돼서 발전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족한 전기 때문에 훈련하던 학생 선수들은 한여름에 시원한 물 한잔 들이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우스로 만든 실내 훈련장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CCTV 등 안전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심지어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불일을 봐야 할 때는 각자 생활하는 근처 원룸으로 바빠 달려



▲ 전기 공급이 안 돼 더워도 시원한 물 한잔 마시기 어려운 컨테이너 라커룸

가야 합니다.

역시 학교 연계형 클럽인 B팀 훈련장도 엇비슷합니다. 먼지 날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훈련할 때마다 학생 선수들은 펜스를 치고 견어야 합니다. 훈련하기 전 기운이 다 빠져 버립니다. 실내 훈련장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장마철에는 아예 훈련을 접어야 하니까요.

시에서 운영하는 야구장을 대관해서 훈련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C팀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야구장 상태는 좋은 편이고 각종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C팀 말고도 3개의 팀이 시에서 관리하는 야구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개중에는 인조잔디

구장이라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모래 구장이라 흙먼지 속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이 팀들 모두 실내 훈련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훈련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지만, 복병은 또 있습니다. 훈련장이 모두 학교에서 너무 먼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클럽팀 대부분 정규 수업을 마치고 훈련을 하는데, 야구장까지 가는 데만 편도 30~40분이 걸립니다. 가면서 벌써 지쳐 버리지요. 훈련 후 귀가하면 밤 11시가 넘는 학생 선수도 더러 있습니다.

### 위험천만한 원룸 주차장에서 공차기

훈련장이 멀어서 마음껏 훈련하기 어려운 학생 선수는 프로 구단 산하 축구 팀에도 있습니다.

“합숙소랑 운동장이 너무 멀어요. 차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운동장 가서 하루 2시간 정도 훈련하는데, 공차기 등 개인 훈련을 좀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운동장까지 갈 수 없으니까 못 하죠. 저는 마음껏 훈련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E구단 최영훈 학생 선수는 공차기 대신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며 아쉬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스장 훈련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합숙소 1층에 웨이트장이 있기는 한데, 기구가 고장 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근처 헬스장 가서 9시까지 하죠. 트레이너 선생님이라 우리끼리 하면 좋을 텐데, 동네 어른도 많고…… 좀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역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I구단 학생 선수들은 합숙소 근처에 개인 운동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 합숙소인 원룸 아래 주차장에서 공차기를 합니다. 주차장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장소도 협소하지만, 개인 훈련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자 축구 팀 중 기업 구단 학생 선수들은 대부분 비교적 양호한 훈련장에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팀 사정은 앞 사례들처럼 훈련장이 너무 멀거나 근력 운동을 할 만한 트레이닝장을 갖추지 못해 학생 선수들 갈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미묘가 응원해요!”



### 야구 전용 구장 갖추고 시 교육청 재정 지원까지!

학교 연계형 클럽인 D팀은 제반 환경이 양호합니다. 3년 전 클럽으로 전환한 이 팀은 합숙소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내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 합숙소는 선수와 지도자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운동장은 야구 전용 구장입니다. 실내 훈련장도 갖추었고, 트레이닝장, 식당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 교육청에서 재정적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보면 샘이 날 만한 조건입니다.

## 솔로몬의 지혜가 간절한 학습권·운동권 보장



### 외국 아이들 보며 충격받은 학생 선수

“고1 때부터 국제 대회를 1년에 열 번 이상 나갔어요. 국제 대회 나가면 하루 종일 시합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선수 플레이 라운지에서 애들이 숙제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여기 와서 저런 걸 해?’ 했어요. 투어를 하다 보면 실력이 비슷한 애들을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고2 때 가니 애들이 또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넌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 시간에 쉬지’ 이랬어요. 근데 고3 때 그 모습을 또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됐어요. 저는 운동만 했고 그들과 운동 수준은 비슷한데, 그 아이들 숙제 수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고2 때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고3이 되니 제가

알 수 없는 수준의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이 컸죠.”

전직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이자 현재 해설가로 활동하는 김지영 인권살피미의 경험담입니다.

국제 대회를 치른 수많은 학생 선수의 ‘충격’은 우리나라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고민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각계각층의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 마련에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오늘, 과연 우리 학생 선수들은 대회 현장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까요?

“책이요? 학교에 있죠. 공부는 진즉에 놔 버렸어요.”

대회 현장에서는커녕 학교에서조차 책을 들여다보며 공부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주로 자요. 피곤하니까요. 수업 마치고 운동장에서 2~3시간, 웨이트장에서 1~2시간 운동을 해요. 주말에는 대회에 나가고요. 쉴 틈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너무너무 피곤해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학력제는 10여 년이 흐른 지금 사실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인 출석인정제는 현재 뜨거운 논란 속에 있습니다. 지나친 훈련 및 대회 참가에 따른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결석 인정 수업 일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 선수의 운동권 및 휴식권을 보



장하기 위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 뜨거운 논란 속에 놓인 출석인정제

인권살피미가 만난 지도자들 역시 의견이 갈렸습니다. 종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출석인정제 안에서는 훈련도 대회 참가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좀 더 크고 높았습니다. 그러나 학생 선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기에 사회에 나가 낙오되지 않으려면 어렵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장인 진천선수촌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장세진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프로로 입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 입단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고 학업을 계속하면서 운동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중에는 출석인정제 때문에 뒤늦게 합류하거나 훈련 도중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후보선수로 어렵게 선발되어 기쁜 마음으로 훈련장에 왔는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야 한다며 속상해했습니다.

출석인정제 때문에 훈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선수들 기량을 더 끌어올릴 수 없어 안타깝다는 지도자도 많았습니다.



▲ 정규 수업 마치고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학생 선수들

“몇몇 선수는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출석인정제가 높이 올라가려는 학생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국가대표 후보선수 A종목의 전임감독은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하려는 학생 선수에게는 ‘운동이 곧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학생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훈련이라는 학습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부요? 잘해요. 반에서 4등 안에 들어요. 우리 팀은 정규 수업 다 듣거든요. 수업 들으려면 피곤하고 줄리죠.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들어요. 우리 학교는 특성화고라서 과가 5개예요. 운

동하면서 공부하려면 00과가 가장 유리해요. 입학할 때 과를 성적 순으로 정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년에서 1등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때 공부도 운동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언젠가 운동을 그만둘 때가 오잖아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자 축구 선수인 고등학교 2학년 윤지혜 학생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출석인정제가 기량을 더 높일 수 있는 학생 선수들 발목을 잡아 안타깝다는 지도자도 물론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피곤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학생 선수 역시 운동 기량이 좀 뒤져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논란 속에 놓여 있는 출석인정제에 솔로몬의 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지도자, 학생 선수, 그리고 우리 모두 같습니다.

### 어르신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선수들

현장을 바빠 오가던 어느 날, 인권살피미 눈에 몹시 생경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눈부신 여름날, 긴장한

체구의 학생 선수들이 커튼을 내린 채 킁킁하고 비좁은 침실 바닥에 누워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열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뭔가 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느낌이 뒤따랐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J구단 학생 선수들은 또래 친구들이 공부하기 위해 학교로 가는 시간, 운동장으로 갑니다. 학교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갑니다. 선수 전원 방송통신고에 학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구단과 E팀 학생 선수들도 방송통신고에 다닙니다.

방송통신고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 선수들 생각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어요”라며 비장한 각오를 내보이는 선수도 있고, 대체로 만족하지만 학교생활이 그림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돌아간다면 결코 이 길을 택하지 않겠다며 울먹이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장한 각오를 내보이는 학생 선수가 많아졌습니다. 방송통신고에 입학하면 일반 학교로는 전학이 불가능하기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인 듯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방송통신고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일반 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에게 중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팀 학생 선수들이 다니는 방송통신고 재학생 중에는 운동부 소속의 19세 이하 청소년이 3분의 1 이

상입니다. 축구, 골프, 야구, 테니스, 태권도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운동부 학생 선수들의 방송통신고 입학은 적법합니다. 단, 10대 청소년들이 주중에는 운동을 하다 한 달에 두 번 50~70대 어르신들과 교우가 되어 말 한마디 섞지 않으며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학생 선수들이 방송통신고에 적을 두는 이유는 다양할 테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온갖 노력이 이런 낯선 모습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경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결국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 선수들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미묘가 응원해요!”



### “역사책 권해 주고 훈련 일지는 영어로 써요”

여자 축구의 F팀 감독은 학생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돼 가는 게 아니라 잘하는 운동의 특기를 발전시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죠. 저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수 시절 몰랐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결석 인정 수업 일수는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 일수를 줄인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걸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팀은 아이들한테 역사와 영어 공부를 시켜요. 역사책을 권해 주고, 훈련 일지는 영어로 써요. 축구 관련 용어라도 영어로 익히게 하려는 거죠.”

### 독서, 스피치 훈련, 그리고 기명 투표

야구 클럽인 D팀 지도자들은 학생 선수들이 기량 못지않게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게 합니다. 책을 읽은 뒤에는 그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스피치 훈련을 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될 훗날을 위한 일종의 인터뷰 훈련입니다. 또 매달

MVP 선수를 뽑아 스파이크를 선물하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 학부모 밴드에 올립니다. 일종의 동기 부여입니다.

학생 선수들 인권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설문 조사도 합니다. 인권 침해 행동을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목격했다면 이름을 적어 냅니다. 연달아 세 번 기명되면 퇴소하기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 학생 선수들 스스로 반인권적 상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핸드폰과 경기력의 상관관계



### MZ 세대, 핸드폰은 '또 하나의 나'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흔히 'MZ 세대'라고 칭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SNS와 인터넷, 핸드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10대 청소년에게 핸드폰은 분신, 즉 자기 자신입니다. 학생 선수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인권살피미 활동 중 만난 학생 선수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애원한 것이 바로 '핸드폰 제한을 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핸드폰은 자기 자신이니깐요.

핸드폰 제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점호 시간 이후 사용 제한입니다. 학생 선수들은 이 정도는 수긍합니다. 자율에 맡겨도 얼마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단체 생활이니 지도자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하루 2시간 내외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훈련을 마치고 잠들기 전 ‘행복한 2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학생 선수들은 오로지 핸드폰만 봅니다. 가족이나 이성 친구와 통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쌓여 있는 카톡을 읽고 답도 하고, 게임도 하고, 본인 종목 관련 동영상도 보고……. 2시간이 쏜살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늘 아쉽기만 합니다.

세 번째는 좀 괴이한 제한입니다.

우선, 승패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날 경기에서 이기면 핸드폰을 받지만, 지면 뺏깁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까지 핸드폰을 쓸 수 없습니다. 또 평소에는 핸드폰을 전혀 쓸 수 없지만 ‘좋은 일’이나 ‘잘한 일’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팀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지도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기에 학생 선수들은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고, ‘잘한 일’은 경기에서 이긴 것이기에 핸드폰을 쓰려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학생 선수들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한 시간이 짧아지는 팀도 있습니다. 저학년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우니 규제를 심하게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 풀어 주는 것이라니 짐작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

다. 이 팀은 합숙소 내 선후배 위계질서가 강한 편이라 빨래나 기타 허드렛일을 주로 저학년이 맡아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갈수록 과업이 줄어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게 옳을 듯합니다. 다른 선수는 모두 하루 2시간만 사용 가능한데, 주장만 제한이 없는 팀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데 대회를 나가는 순간 핸드폰과 안녕인 팀도 있습니다. 어느 여자 축구 팀 이야기입니다. 주말 리그가 없는 여자 축구는 1년에 몇 차례 정기 대회에 출전합니다. 대회 특성상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경기를 치릅니다. 이때 핸드폰은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여자 축구 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핸드폰을 두고 벌이는 전쟁

‘분신’인 핸드폰을 이렇듯 제한하다 보니 부작용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지도자 몰래 공기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입니다. 지도자 눈을 속이는 데 철두철미하지 못합니다. 어느 팀 학생 선수들은 얼마 전 공기계를 사용하다 들통이 나서 십수 명이 벌금을 무려 30만 원씩 물었습니다. 합숙소 규칙 중 ‘공기계를 사용하면 벌금 100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도자가 좀

깎아 줬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벌금을 30만 원이나 무는 홍역을 치렀으니 이제 이 팀 학생 선수들은 공기계는 쳐다도 안 볼까요? 과연 그럴까요? 핸드폰 제한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 간 속고 속이는 전쟁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쟁이라도 치르면 다행입니다. 합숙소 내 규칙을 넘어 지도자 감정이 개입되면 학생 선수들은 싸우기도 전 완패입니다. 선수들이 뭔가 맘에 안 드는 행동이나 잘못을 하면 그 즉시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는 팀도 있습니다. 혹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도자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손에서 떠난 핸드폰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도자 마음이 풀리길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넘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학생 선수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이렇듯 핸드폰은 지도자에게 학생 선수들을 편하게 관리하고 때론 억압하고 때론 협박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핸드폰을 무기로 사용하는 건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후배들을 괴롭히거나 위계질서를 앞세우는 선배들에게도 무기입니다. 하루 2~3시간 황금 같은 시간에 선배에게 핸드폰을 빼앗기면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민다”고 합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특이하게도 핸드폰을 여자 선수를 차별하는 무기로 쓰는 지도자

도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의 훈련장에서는 핸드폰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종목별로 다르지만 대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함께하는 훈련이다 보니 성인 선수도 있고, 합숙소가 호텔이나 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라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숙박업소도 아닌 진천선수촌 내 숙소에 묵으며 훈련하는 어느 종목의 지도자는 여자 선수들과 남자 선수들의 핸드폰 사용 시간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여자 선수는 남자 선수보다 1시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종목의 여자 선수들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동 동선이나 두발 규제 등에서도 남자 선수들과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 핸드폰과 경기력의 상관관계?

지도자들이 핸드폰 사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학생 선수들이 사용 제한을 풀어 달라는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지도자들 의견 중 핵심은 경기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자 축구 선수들은 타 팀 선수들과도 친한데, 대회 기간에 통화하다 보면 경기 중 과격한 몸싸움을 하지 않게 돼요. 아무리 ‘강하게! 강하게!’를 외쳐도 몸싸움을 하지 않아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어지는 대회 기간 내내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어느 여자 축구 팀 지도자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가웃하게 됩니다. 대회 중 친구끼리 통화한다고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통화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멀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요. 과격한 몸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가 ‘통화’ 때문이라는 지도자의 말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핸드폰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하면 일상생활은 물론 훈련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니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대다수 지도자의 입장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더 못하게 돼요. 핸드폰이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학생 선수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지도자와 학생 선수 간 입장이 팽팽합니다.

과연 핸드폰 사용과 경기력은 상관관계가 높을까요?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팀 가운데 남자 축구 2개 팀과 여자 축구 1개 팀은 핸드폰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중 여자 축구 팀은 대회 중에만, 그것도 취침 시간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이 3개 팀의 경기력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개 팀 모두 하반기에 성적이 올랐고, 그중 2개 팀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 자극심과 압박감이 벌이는 마음속 전쟁



### 하늘을 찌르는 자극심

공기총 사대 70여 개를 갖춘 사격장에 경쾌한 음악이 흐릅니다. 총과 음악이라니. 잠시 그 둘의 부조화에 고개를 가웃했으나 이내 함께 흥겨워집니다. 경쾌한 음악에 국가대표 후보선수 40여 명의 발랄한 웃음소리가 더해집니다.

예전에는 사격을 할 때 조용히 하는 등 선수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중이 있어야 사격도 존재할 수 있기에 시끄러운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악을 틀어놓고 훈련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행 평가에 사격 종목이 있어서 해 봤는데, 제

가 너무 잘 쏘는 거예요.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재미있죠.”

사격 선수인 고등학교 3학년 유진아 학생 표정이 밝습니다.

전국 각지의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장에서 만난 학생 선수들 표정은 진아처럼 밝고 환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번 해 봤는데 너무 잘해서 운동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후보선수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는 대한체육회에서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의 4단계로 이어지는 전문 선수 육성 방안에 따라 해마다 선발됩니다. 후보선수들의 국가대표 진출률이 2021년 기준 85퍼센트에 이를 만큼 우리 스포츠계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300여 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의 연령대는 종목별로 다



▲ 하늘을 찌르는 자궁심 한여름 땀별쫓이래 바이애슬론 선수들 훈련 장면

르지만 보통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선수 경력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입니다. 후보선수가 처음인 학생도 있고, 해마다 뿔뿔히 떨어져 4년 차인 학생도 있습니다.

각 종목에서 최우수 선수들을 선발한 만큼 이들의 기량은 매우 뛰어납니다. 기량이 뛰어나다 보니 운동하며 성장해 오는 내내 칭찬과 박수를 듬뿍 받아 구김살이 없습니다. 모두 명랑합니다. 자궁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멋있잖아요! 다들 잘해서 모였으니까요.”

육상 선수인 고등학교 2학년 임주완 학생 말처럼 정말 다들 멋진 선수들입니다.

### 손가락 넣어 토하며 하는 혹독한 훈련

“훈련 시간이 길고, 서서 쏘는 거라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훈련은 길면 5시간, 짧아도 2시간 이상 해요. 코치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도 있을 만큼 집중해서 오래 하는 편이에요. 잘 맞으면 천국 같고, 안 맞으면 지옥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

사격 선수 진아의 밝은 표정 뒤에는 이토록 험난한 훈련 과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영부영하다 국가대표 후보선수가 됐을 리는 없겠지요. 밝고 멋진 표정의 국가대표 후보선수 대부분 그랬습니다.

혹독한 훈련, 자기와의 싸움. 거기에 몇 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상.

기계체조 선수인 중학교 2학년 김유연 학생은 무릎, 허벅지, 허리 등 온몸이 아프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기 어려울 만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군데군데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니 그냥 얼음찜질을 하면서 쉬라고 했으나, 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계체조 선수인 고등학교 2학년 이은빈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 후에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골절이 되었습니다. 철심 박는 수술을 하고 재활 과정을 거친 뒤 복귀했으나 1년 후 같은 부위가 다시 골절됐습니다. 결국 중학교 3년을 내내 수술과 재활만 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기계체조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잠깐만 실수하면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친 데 또 다칠까 봐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은빈에게 부상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혹독한 훈련, 자기와의 싸움, 부상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몸 관리라는 스트레스가 더해집니다.

“감독님이 자기 기준 몸무게에서 200그램만 넘어도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다들 몸무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죠. 먹고 손가락 넣어서 토하거나 설사 유도제 먹고 설사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먹고 싶은데 체중 늘면 혼나니까 위아래로 빼 버리는 거죠.”

한여름에 반신욕을 몇 시간씩 하거나 패딩을 입고 땀을 빼기도 합니다. 그러다 눈앞이 까매지면서 쓰러지는 날도 있습니다. 자칫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 혹독한 훈련과 지독한 압박감 끝에서 마주한 차가운 현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필드하키 훈련장에서 만난 대학교 1학년 박아람 학생 선수는 머리카락을 눈썹 아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훈련하다 보면 땀도 흐를 텐데. 잠시 괜한 걱정을 해 봅니다.

“머리카락요? 훈련하다 스틱에 맞아서 눈썹 위가 찢어졌어요. 수술했는데 흉터가 남았어요.”

아람은 공에 맞아 손가락도 부러졌다고 합니다. 부상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상처 따위가 아닙니다.

“졸업하면 그만둘 건데, 그동안 하키 말고는 해 본 게 없어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해요.”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히기도 어렵고 실업팀도 많지 않아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혹독한 훈련, 자기와의 싸움, 부상, 목숨을 건



몸 관리. 그리고 그 끝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그만두면 안 된다는 마음이 늘 싸우고 있어요.”

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 종목별 최우수 선수만 모인 국가대표 후보선수 중 적지 않은 선수의 마음속은 전쟁터입니다.

종목별로 크기와 깊이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학생 선수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혹독한 훈련, 자기와의 싸움, 부상, 몸 관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여기에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해집니다.

압박감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도 하고, 지도자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잘하고 싶고, 1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압박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잘하는 선수일수록 압박감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자의 압박이 더해집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금메달 따야 한다. 못 따면 운동 그만둬라.”

안 그래도 숨을 못 쉴 것 같은 학생 선수들에게 지도자들은 때론 칭찬으로, 때론 무언으로, 때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빠지면서 혈색이 창백해졌어요. 컨디션이 나빠서라고 여기고 휴식을 취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병원에 가게 됐고,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 훈련, 부상, 몸 관리, 거기에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쇼트트랙 선수들 훈련 장면

사격 선수인 고등학교 2학년 송은영 학생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지 못한 뒤로 성적이 점점 더 부진해지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운동을 쉬고 싶지만, 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져서 쉴 수도 없습니다. 공황 장애 진단을 받고도 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멘털 관리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10대 청소년인 학생 선수들은 외모만 보면 아직 다들 아기 같지

만, 마치 어르신들처럼 허리, 팔다리, 어깨 등 온몸이 아프다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그렇지만 그만둘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내내 울던 선수들을 보며 적잖이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선부른 한두 마디가 결코 위로가 될 성싶지 않아 그저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 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모두 끝내고 훈련 과정을 참관하면서 다시 한번 당황합니다. 천장까지 줄을 타고 씩씩하게 오르고, 한 손으로 물구나무서기를 한 채 한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공중에서 몇 바퀴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아이 모



▲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 뚝 그치고 다시 훈련에 집중! 기계체조 선수들 훈련 장면

습은 온데간데없는, 모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선수입니다. 한 학생 선수의 말대로 “엄청난 희열 같은 게” 지켜보는 사람도 느껴집니다.

엄청난 희열을 선수도 느끼고 보는 사람도 느끼며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독한 훈련, 자기와의 싸움, 부상, 목숨을 건 몸 관리,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잘 이겨 내고, 그 끝이 막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상당한 선수에게는 편안히 쉴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고,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누구나 잘할 수도 잘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어른이, 지도자가 선수들 곁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는 혹독한 훈련만 견뎌 내도록 해야겠습니다.

학생 선수 대부분 “그동안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라며 인권살피미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시지만 전교생을 상대해야 하기에 만나기가 쉽지 않고, 운동선수의 특성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선뜻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 심리 상태를 체크해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전문적인 멘탈 관리 선생님이 상주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미오가 응원해요!”



### “주기적으로 다 같이 사우나에 가요”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주기적으로 사우나에 가는 팀이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피로도 풀 겸 다 같이 사우나에 가요. 훈련의 방향성이나 진로 문제, 현재 고민 등 평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덕분에 답답한 마음도 좀 풀리고, 감독님과 코치님들이랑 더 가까워졌죠. 팀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훈련 분위기가 다운되면 코치님들이 분위기를 띄워 주려고 노력하세요. 경기에서 지면 위로해 주시고요. 선수들만 잘하면 우리 완벽한 팀입니다!”

### “언제든 찾아가 마음을 나눕니다”

운동선수 출신인 팀 내 관리부 선생님이 학생 선수들과 상담을 자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선수였고, 프로 선수 자녀를 둔 선생님은 누구보다 학생 선수들 심리 상태를 잘 헤아릴 수 있어 창단 때부터 상담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경기에서 지고 온 날, 다른 날과 달리 훈련이 잘 안되는 날, 합숙소 생활에서 오는 답답함에 마음이 불편한 날, 학생 선수들은 선생님 방을 노크합니다. 선생님은 전문 상담사 자격증은 갖추지 않았지만, 학생 선수들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 “전문 상담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인권살피미가 방문한 스포츠클럽 팀 대부분 지도자들이 상담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때론 친구가 되어 때론 선배나 형제자매가 되어 학생 선수들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지도하는 데 몰두하다 보면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은 전문적인 상담사가 팀마다 상주하면서 학생 선수들 심리 상태를 체크해 주고 멘탈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에게 상담사 선생님은 더욱 절실합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크고 무거워 누군가 잡아 주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듯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선수들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상처는 치유해 주고, 불안감은 누그러뜨려 주고, 못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 줄 따뜻한 상담 선생님이 학생 선수들 곁에 있어야겠습니다.



## 땀방울, 환호, 그리고 그림자



### 드라마틱한 축제의 한마당

여자 축구 대학부 결승전이 막 끝난 울산과학대 운동장. 90분 내내 잔잔하던 바람과 평화롭게 떠다니던 뭉게구름은 그대로인데, 두 팀의 학생 선수들 표정은 한순간에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승리의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올리고, 1점 차로 아쉽게 진 다른 한쪽은 눈물을 쏟아 내며 고개를 떨굽니다.

환호성을 올리는 선수들 목에 금메달이 하나하나 걸리는 동안, 눈물을 쏟아 내며 고개를 떨군 선수들 앞으로 작은 케이크가 배달됩니다. 선수 중 누군가의 생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선수들 얼굴에 일순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더니 다 함께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한쪽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웃고, 다른 한쪽은 노래를 부르며 웃습니다. 안타까움에 탄식을 쏟아 내던 한쪽의 관중들도 아쉬움을 접고 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승리한 쪽은 다시 힘을 모아야 하고, ‘졌지만 잘 싸운’ 또 한쪽은 눈물을 멈추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웃습니다.



▲ 금메달과 케이크, 그리고 다 함께 박수!

땀과 눈물, 환호와 비탄, 박수와 탄식이 한순간에 뒤섞여 펼쳐지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축제의 한마당. 바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입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46개 정식 종목과 보디빌딩, 합기도, 족구 등 3개의 시범 종목에 채외 동포를 포함한 선수단과 임원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스포츠 축제였습니다. 긴장한 선수들, 조마조마 애태우는 관중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숨 가쁘게 뛰어다니는 대회 관계자들 모두 한마음으로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 선수들 기량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아쉬운 환경

인권살피미는 사전 경기 종목과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종목을 제외한 42개 세부 종목 경기장을 방문해 대표 선수 선발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경기는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혹시라도 편파 판정에 마음 다친 선수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선수 선발은 대부분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만, 완벽하게 공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세세히 살피기는 어려웠습니다. 편파 판정 역시 몇 종목에서 시비 여부가 언론에 오르내렸으나,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경기장 시설,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숙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등은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선수들이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경기장, 탈의실, 선수 대기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규모가 워낙 커서 정규 경기장이 아닌 임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의실과 선수 대기실이 부재하거나 매우 협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댄스스포츠는 종목 특성상 탈의실이 다른 어느 종목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수가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고 복도에서 분장을 했습니다. 보디빌딩 선수들 역시 노출이 많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 전 전신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신체가 많이 노출된 상



▲ 복도에서 대기 중인 보디빌딩 선수들



▲ 좁아도 너무 좁은 탈의실

태로 대기해야 하는데, 대기실이 매우 협소했습니다. 선수 대부분 경기장 복도에서 대기했는데, 관중이 드나들고 있어 선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의 경기장들도 탈의실이 협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장 뒤편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여자 선수들은 친구들끼리 가림막을 만들어 옷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산악은 한 경기장에서 모든 종목을 진행하고 있어서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이 실외에 설치해 놓은 천막이라서 제법 쌀쌀한 10월의 날씨에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하는 종목도 많고, 경기장 복도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대기하는 선수도 많았습니다. 또한 남녀 분리 대기실이 없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한편, 격렬한 투기 종목에 비해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의 경기장에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는 경기 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수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종목에 구급차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경기장에는 CCTV나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열악하면서도 너무 비싼 숙소도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을 힘들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평소 가격의 두세 배는 예상였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숙박업소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선수와 지도자는 인근 도시의 숙소에 묵으면서 편도 1시간 이상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며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폭력·성추행 등 인권 침해 상담 및 신고 안내물을 배치한 경기장은 더러 있었으나 아쉽게도 인권 관련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조 종목은 인권 침해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기 위해 경기 기간 내내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신경 쓰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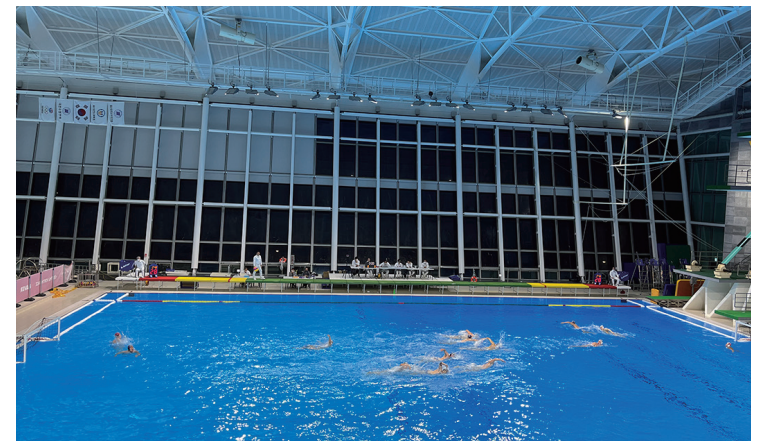
### 밤 12시 30분에 경기 종료하는 ‘비인기 종목’ 수구

“우리 팀이 어제 마지막 타임 경기였는데, 끝난 시간이 밤 12시

30분이었어요. 경영 스케줄 다 맞춰 주고 마지막에 수구 경기를 넣어 준 거죠. 한마디로 경기 시간 배정이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결승전만 낮에 하는데 그것도 경영 종목 오전 경기와 오후 경기 사이 비어 있는 시간이에요. 배려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종목과 차별하지 말고 정상적으로만 진행해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구만 단독으로 수영장을 하나 배정해 줘도 될 텐데, 굉장히 아쉽네요.”

수구 경기는 항상 오후 6시 이후로 시간대가 배정됩니다. 아쉬움을 전한 어느 수구 선수는 이렇듯 매년 경기 시간 배정이 불공정한 이유는 수구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몇몇 종목 외에는 대회 운영상 크고



▲ 한밤중에 치러지는 수구 경기

작은 차별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비인기 종목이 처한 어려움은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의 차별만은 아닙니다.

2022년 국정 감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선수는 2017년 기준 6만 5000여 명에서 2021년 기준 약 5만 5000명으로 4년여 만에 약 1만 명이 줄었습니다. 학생 선수 감소로 인한 선수 확보의 어려움은 인기 종목에서도 흔히 겪는 일이지만, 특히 비인기 종목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팀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비인기 종목은 실업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진로를 앞둔 학생 선수들을 암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협회나 연맹 등 지휘 감독하는 기관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자꾸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차별은 그래서 이들에게 너무 아픕니다. 종목별 차별은 어떤 형태로든 없어야겠습니다.

### 차별 없는 진정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길

태권도 경기가 종료된 직후 경기장 안에서는 시상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박수가 경기장 안을 가득 메웁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답이니 선수 모두 즐겨

마땅합니다. 인권살피미도 덩달아 즐겁습니다.

같은 시각, 대기실 앞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 선수들 손에 풍성한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에게 선물할 꽃다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꽃다발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선배 선수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시작했을 테니 아마도 십수 년간 운동을 했을 선배 선수는 이제 도복을 벗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로 혹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겠지요.

전국체육대회는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보답받는 결실의 장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여정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의 장입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 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선수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선수 모두 제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경기장 제반 시설을 고루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종목이든 관심을 덜 받는 종목이든 차별 없는 경기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수와 지도자는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을 충분히 받고, 관객들은 환호하며 행복해하고, 경기 운영 관계자들은 걱정을 덜어, 다 함께 즐기는 진정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더 많은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제2부

# 무너뜨려야 할 장벽

제자들을 좀 더 잘 가르쳐서 그들이 꿈을 이루게 하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을 왜 굳이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으로 차갑게 표현할까요.

## "좋은 선생님 한 분 계시면 좋은 선수 10명이 나와요"



###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지도자들

“엄청 많이 맞았어요. 얼굴과 팔, 등 가릴 것 없이 매일 맞았죠.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종목 특성상 무섭게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칭찬해 주면 한 번 연습할 것도 본인이 두 번 하겠다고 해요. 제가 맞고 1등 해 보니까 1등의 기쁨은 크지만 잠깐이고, 아픔은 아직도 느껴져요. 맞으면서 ‘나는 절대로 아이들을 때려서 가르치지는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국가대표 후보선수 B종목 전임감독의 다짐입니다.

“20대 중반에 학창 시절 감독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모교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을 하던 그 감독이 명

의 도움으로 제게 5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끝내 신고를 못 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이라서 감독이 무서웠거든요. 학생 때 너무 많이 맞고 욕을 들어서 감독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 기억이 남아 있던 거죠.”

어느 남자 축구 팀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의 피해는 이토록이나 깊고 오래갑니다.

현장에서 만난 지도자들은 너나없이 학생 선수 시절 맞고 욕을 들으며 운동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폭력은 운동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으며 배웠기 때문에 안 때리고 가르치는 법을 몰라 헤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모두 고통스럽게 그 시절을 견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은 고통을 제자들은 절대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인권 교육도 열심히 받고, 잘 모를 때는 책을 펼쳐 읽기도 합니다.

“좋은 선생님 한 분 계시면 좋은 선수 10명이 나와요.”

사기를 당하고도 무서워서 감독을 신고하지 못했던 20대 중반의 청년은 이제 중년의 지도자가 되어 학생 선수를 가르치면서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고 ‘좋은 선생님’도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지도자는 대부분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 선수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지도자들의 이런 노력을 미덥지 않아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일하려면 ‘징계 사실 유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 뒀습니다. 지도자들 스스로 노력하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으니 앞으로는 아픈 뉴스를 보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 ‘좋은 선생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

그런데 현장에는 ‘좋은 선생님’에 대한 시각이 왜곡된 지도자도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폭력도 아주 심했죠. 저도 그런 폭력을 당하면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지도할 수 없잖아요. 신체폭력은 안 하지만 필요할 때는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아니 상처받으라고 일부러 심한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해요.”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장에서 만난 어느 지도자처럼 신체폭력은 안 되지만 언어폭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기량이 느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뜻밖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맞고 욕먹고……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칭찬만으로는 1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강압이 있어야 1등이 가능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보다 더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터치할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소리도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제지당하니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지도자들의 폭력과 폭언이 제 선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빼뺏어질 수도 있는 저를 바로잡아 준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폭력이 나쁜 기억이라기보다는 추억처럼 남아 있어요.”

지도자의 폭력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또 다른 지도자는 ‘너무 아픈 기억’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발로 밟히고 무자비하게 맞았어요.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 아픈 기억입니다.”

지도자의 폭력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에게는 ‘아픈 기억’입니다.

언어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도, 지도자의 폭력이 빼뺏어질 수 있는 자신을 바로잡아 줬다고 추억하는 지도자도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잘 가르쳐서 제자들이 꿈을 이루게 하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을 왜 굳이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으로 차갑게 표현할까요.

## 현재 진행형인 지도자들의 다양한 폭력



“감독님들은 다 그렇게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더해졌으나 안타깝게도 인권살피미가 활동한 현장에는 아직 신음하는 학생 선수가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아픔의 강도나 횟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축구 종목에서는 30퍼센트 이상의 팀에서, 야구 종목에서는 50퍼센트의 팀에서 여전히 지도자가 언어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들 중에도 본인이 소속된 팀 지도자의 언어폭력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언어폭력을 ‘아주 상스러운 욕’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낮은 수위의 욕설이나 고함, 비하 발언, 인신공격 등으로 폭

을 넓히면 아마도 그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30~50퍼센트의 팀에서 행해지는 언어폭력은 그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들이 언어폭력을 행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일상적으로 욕이 입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X발’, ‘개XX’ 등 욕을 일상적으로 하는 지도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화가 나면 아주 심한 쌍욕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언어폭력에 노출돼 있다 보니 지도자에게 욕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학생 선수가 많았습니다.

“욕을 하도 들으니 ‘이X 저X’ 하는 욕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설령 심한 욕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솔직히 맞고 때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야 이 시XX아’ 하는 정도의 욕이야 뭐 일상이고요. 못 들은 척하거나 ‘원래 그랬으니까’ 하고 익숙하게 넘겨요.”

그렇게 익숙하게 욕을 듣다 보니 학생 선수들 입에도 욕이 붙습니다.

“욕은 그냥 일상이에요. 하도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아, 그런데 코치님한테 들은 욕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와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친구들에게 저도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어느 학생 선수는 모든 감독이 언어폭력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예전 감독님은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알려 준 대로 못 하면 욕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미친X’, ‘죽여 버리고 싶네’, ‘미친 XX들’ 이런 식으로요. 저희는 모든 감독님이 다 그렇게 욕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하고 돌아보고 싶지 않아 학생 선수들은 나름의 자기 보호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코치님이 소리도 많이 지르고, 욕도 막 하세요. 저는 욕을 들으면 그냥 흘려 버려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일상적이어서 지도자의 언어폭력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학생 선수들 마음속에도 아마 자기만의 방어 기제가 하나 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것은 본능이니깐요.

### “경기에서 지면 인신공격성 발언과 거친 욕설을 퍼부어요”

지도자들이 언어폭력을 행하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훈련장에서입니다.

“감독님이 다혈질인데, 한 번씩 팡 터질 때가 있어요. 훈련 중 소리를 지르거나 쌍욕을 하는 등 폭언을 심하게 하세요. ‘씨X’, ‘개 XX’가 입에 붙어 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폭력 엄청 썼다’는 말

도 하세요. 지금은 때리지는 않고 제스처만 취하세요. 욕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신감도 사라지고요.”

이 감독은 심지어 코치들에게도 욕을 한다고 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도 제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감독님이 욕을 하며 야단을 치시면 지옥 같아요. 좀 못하더라도 잘할 수 있게 친절히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유형은 평소에는 언어폭력을 하지 않지만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거친 욕설을 퍼붓는 경우입니다. 학생 선수들은 경기 중에 욕을 들으면 더 다운돼 경기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경기에서 지면 분을 못 이겨 아주 심한 언어폭력을 일삼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 당장 핸드폰을 압수하고 외출과 외박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폭언과 함께 예정에 없던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진행합니다.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감독의 분풀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학생 선수 모두 알고 있으나, ‘집중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니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가능할 때까지 시켜 결국 부상을 입는 선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경기할 때 실수한 선수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부어 당사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친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과연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체 장애아들 운동하는 곳’이라던 감독, 용납이 안 돼요”**

외모를 빗댄 언어폭력을 하는 몰지각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훈련 중 실수를 하면 여지없이 ‘또라이’라며 폭언을 퍼붓다가 학생 선수가 콤플렉스로 느끼는 외모 부위를 빗대어 욕을 합니다. 이 지도자 역시 ‘개XX’, ‘X자식’이 입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정말 끔찍한 언어폭력을 행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제가 전학을 왔거든요. 오기 전 감독님한테 인사를 갔더니 ‘야, 거긴 지체 장애아 받아서 운동하는 곳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저희한테 맨날 ‘장애인 같은 놈’이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언어폭력에 노출된 학생 선수들은 대체로 표정이 어둡고 뭔가 위축돼 있으며 의기소침한 상태입니다. 목소리도 작고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운동이 힘들어서 지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입을 꼭 다문 채 말을 하지 않는 학생 선수들에게 한참을 객쩍은 소리와 함께 장난을 치며 다가가면 이야기를 살짝살짝 꺼냅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음을 열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직이 덧붙입니다.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어요. 인권살피미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비해 줄어든 신체폭력, 점점 교묘해지는 정서적 폭력**

이번 활동에서 드러난 성폭력 피해 사례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감독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수사 중인 테다 피해 학생 선수가 언급하는 걸 원치 않아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훈련 중 감독의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터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 같으며 괴로워하는 학생 선수도 있었으나, 이 역시 학생 선수가 더 이상의 언급을 원치 않았습니다.

인권살피미가 방문한 스포츠클럽 40개 팀 가운데 30~50퍼센트의 팀에서 지도자의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신체폭력이 드러난 팀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담 시간의 제약, 그리고 전체가 아닌 일부의 학생 선수만을 상대로 진행한 점, 상담 공간 주변에 지도자가 있어서 학생 선수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으리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신체폭력은 확연히 줄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신체폭력이 줄어든 이유는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지도자들의 각성, 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

꾸준히 진행돼 온 인권 교육, 징계받을 경우 다시는 지도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든 법적 장치 등 다양할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줄었으나 지도자들이 학생 선수에게 가하는 신체 폭력은 여전히 끔찍하기만 합니다. 학생 선수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핸드폰 모서리로 머리를 쿡쿡 박기도 하고, 운동 도구로 정강이와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공을 머리에 던지기도 합니다. 혹은 손으로 등과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도 합니다. 신체폭력을 가할 때는 언어폭력이 동시에 행해집니다. 맞고 욕을 듣는 학생 선수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주목할 점은 신체폭력은 줄었으나 교묘한 방식의 정서적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선수와 협의 없는 지도자 일방의 핸드폰 제한은 그 양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도자의 분풀이성 훈련도 ‘집중력 강화’라는 이름을 달고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 학생 선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지도자도 있고, 화가 나면 몇 주 동안 학생 선수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특이한 지도자도 있으며, 체급을 올리기 위해 식단 조절을 하는 학생 선수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며 생활 통제를 일삼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미오가 응원해요!”



### 화 대신 차분한 설명, 몰아붙일 때는 힘을 주면서

A구단의 어느 지도자는 학생 선수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한 대화로 혼내세요. 몰아붙일 때는 힘을 주면서 몰아붙이시고요. 힘든 훈련을 할 때는 그 훈련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고 경기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경기에서 지더라도 힘없이 지는 게 아니라 해 보고 싶은 걸 하다가 지는 식입니다.”

### 긍정적인 언어만 써야 하는 미국의 교육 기관

“미국은 모든 교육 기관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만 써야 해요. 그래서 ‘왜 못해!’가 아니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표현 방식이 부정적이죠. 그런데 미국 지도자들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또 미국에서는 남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을 안 해요. 지도자 역시 자기가 가르치는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그 선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굳이 부정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재외 동포 선수들을 이끌고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한 미국의 어느 지도자가 들려주는 그 나라 스포츠 현장의 단면입니다. 문화, 역사, 사회 분위기는 물론 스포츠 환경이 우리와는 사뭇 다른 미국이지만, 굉장히 부럽고 샘이 납니다.

## '선후배 위계질서'라는 괴물



### '선배는 하늘, 후배는 땅'

선수들 마음을 지옥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선후배 위계질서'라는 괴물도 있습니다. '위계질서'란 '관리나 벼슬의 등급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차례와 순서'라는 뜻입니다. 군대 등 계급이 분명한 조직 사회에 필요한 말이지요. 여기에 '상명하복'이 보태집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학교와 운동부는 군대도 아니고 계급이 분명한 조직 사회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한두 살 많고 적은 선후배가 모여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운동부에서 '선배는 하늘, 후배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에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존재하는 이유는 스포츠의 근본은 경쟁이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군대에서처럼 전투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스포츠에 대한 근대적 개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정' 경기나 태극 '전사'처럼 스포츠 용어 중 상당수가 군대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늘 같은 선배'가 지나가면 허리를 90도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은 체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장에서 만난 한 중학생은 "선배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데 하루에 열 번 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라며 한숨을 푹 내쉽니다. 하루에도 열 번 넘게 인사를 받는 선배는 탈의실에 자기 비품이 없으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후배들을 발로 걷어찬다고 합니다. 후배는 억울하지만 잠시 뒤 만난 그 선배에게 다시 90도 인사를 해야 합니다.

90도 인사는 애교 수준이고 심부름은 기본입니다. 각자 원룸에서 생활하는 어느 팀의 후배는 아침마다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깨워줘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그 바쁜 아침에 직접 찾아가서 깨웁니다. 또 다른 팀에서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따까리'라고 부릅니다. 합숙소에서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하는 '따까리'들은 잘못하면 기합도 받고 욕도 먹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경우는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이 무의미할 지경입니다.

### 선배들이 가하는 끔찍한 신체폭력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신체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학생 선수는 선배에게 발로 걷어차이고 뺨을 수십 대 맞았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단체로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30여 분간 ‘얼차려’를 시키고 손과 발로 머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팀에서는 선배들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녹취를 할까 봐 사전에 핸드폰을 걷는 치밀함까지 갖추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선배보다 먼저 먹고 일어섰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맞은 학생 선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가장 잘하는 선배 혹은 주장을 맡은 선배가 후배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에서 운동을 가장 잘하는 선배나 주장이 폭력을 행사하면 후배들은 그저 묵인하거나 방관해야 합니다. 감히 나설 수 없습니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주장인 선배는 그 팀에서 힘이 가장 세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 선수는 주장을 맡으면서 후배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이 참다못해 지도자에게 이를 알려 도움을 청했고, 지도자는 즉각 가해 학생을 퇴출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주장을 맡았던 가해 학생의 위력이 작동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가해 학생을 따라 같은 학년 선수 전원이 팀을 옮긴 것입니다. 결국 선수 부족으

로 팀은 대회 참가가 불가능해졌고, 가해 학생을 포함해 새로운 팀으로 옮긴 학생들은 멀쩡하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지도자 위계질서 조장의 내막

그런가 하면 지도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선후배 간 위계질서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저학년생에게는 좀 더 무거운 업무를 부여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업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식입니다. 핸드폰 제한에도 차등을 두어 1학년은 밤 11시 이전에 제출하고 아침에 받아서 사용하다가 학교에 갈 때 팀 버스에 두고 내리고, 2학년은 제출 시간은 같지만 아침에 받아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으며, 3학년은 아예 핸드폰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식입니다. 학생 선수들은 핸드폰 제한에 차별을 두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관행이려니 여깁니다.

지도자들이 위계질서를 교묘히 혹은 자신도 모르게 조장하는 이유는 합숙소 관리에 대한 편리함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벅찬 지도자들이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학생 선수들을 세심히 돌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후배 선수들을 일정 부분 관리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군대식 관리 문화입니다.

합숙소에 군대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고, 그 결과 많은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감시와 통제 문화가 여전한 팀이 많습니다.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며 삭발을 강요하기도 하고, 전지훈련을 앞두고는 다 같이 머리를 자르라고도 합니다. 규칙을 정해 두고 어겼을 때마다 벌점을 부과하는 팀도 있고, 벌금을 물게 하는 팀도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핸드폰 대신 공기계를 쓰면 100만 원,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1분당 1만 원, 그날그날 마셔야 할 우유가 냉장고에 남아 있으면 1만 원 등등 생활 전반을 벌금으로 통제합니다.

학교에서는 모두 허용하는 파마, 염색, 화장, 액세서리 등을 전면 금지하는 여자 축구 팀도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착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쁘게 치장하면 운동이 더 잘돼 용돈을 모아 사기도 하고 선물로도 받아 너무나 소중한 액세서리를 졸업할 때나 돌려받게 됐다며 학생 선수들이 울상을 짓습니다.

## "두려워서 신고 못 해요"



### 알고 있는 학생 선수들

“오늘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거 같다, 아이 씨X 욕이 입에 붙어 있어요, 하도 들어서.”

상담을 진행하는 곳 문을 열고 다짜고짜 한 학생 선수가 들어오더니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보통 인권살피미 셋이서 한 팀당 15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날 선정되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수천수만 번 욕을 듣거든요. 코치님한테 배웠죠.”

그는 이후 상담하는 곳을 들락거리는 친구들을 향해 계속 쌍욕을 해 댔습니다.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워 일단 멈추고 밖으로 나와 상



답을 진행하던 학생 선수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니까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말하고 싶어서…….”

거칠게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까요.

몇몇 학생 선수는 지도자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마음에 병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선수는 몇 달 전 운동부 규칙을 어겨 지도자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규칙을 어겼으니 한두 번의 꾸지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도자가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이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심한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시종일관 비아냥거리기 때문입니다.

“비아냥거림과 욕설, 무시하는 발언이 하루 종일 귓전에서 맴돌아요.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몇 개월이 지옥이었다며 울먹입니다.

또 다른 선수는 더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하며 앓고 있습니다. 3년 전 지도자에게 꾸중을 들었는데 그 뒤로 늘 감시받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훈련 도중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잠깐 공놀이를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조차 지도자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숨이 막혀 왔습니다. 지도자는 평소에 전화를 자주 걸어 위치를 확인하곤 했는데, 그 뒤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뛰고 지도자가 타는 종류의 자동차가 눈에 띄어도 손바닥에 땀이 차곤 한답니다.

훈련 중 지도자의 과도하고도 반복적인 터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는 학생 선수도 있고, 지도자의 성폭력으로 일상이 망가져 버린 학생 선수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인 한 학생 선수는 최근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유소년 시절 지도자의 지나친 훈계 때문에 과호흡 증상에 실신까지 했으나 이후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두려워서 신고 못 해요”

이번 활동 중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스포츠윤리센터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의뢰한 학생 선수는 19명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먼저 상담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은 망설임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많은 학생 선수가 상담과 신고를 망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보복이 두려기 때문입니다. 학생 선수는 물론 지도자 역시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혹은 스포츠

윤리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지도자직을 잃거나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느 지도자는 인권 침해 사실을 목격하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더욱이 아직 어린 학생 선수에게 지도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자나 다름없어 대부분의 학생 선수는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거나 개선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2년 국정 감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유형에는 ‘폭력·폭언·폭행’이 51건, 신체 폭력 17건, 언어폭력 11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7건, 그리고 기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중징계 비율은 2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을 키우지 말자”는 안이한 생각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어느 팀은 지도자들이 이를 쉬쉬하며 덮어 버렸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분리되지 않고 아직 같은 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를 ‘일을 키우는 곳’이라고 여기는 지도자도 더러 있었습니다.

### “월 단위로 인권 교육을 해 주면 좋겠어요”

한편, 이번 활동 중 인권 침해와 관련된 설문 조사도 병행했는데, 앞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신고나 상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72퍼센트의 학생 선수와 지도자 및 관계자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한 ‘2021년도 체육계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서 인권 침해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선수 2명 중 1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하면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조사 대상과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이겠지만, 추세상 신고하거나 상담할 의향이 높아 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덮어 버리면 더 큰 후유증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유소년 시절 지도자의 지나친 훈계가 트라우마가 되어 최근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어느 학생 선수의 고통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는 우선 상대방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적절한 처벌과 교육을 받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옳은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인권 침해인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 선수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 선수와 지도자의 1년 2회 의무적 인

권 교육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단위로 인권 교육을 해 주면 좋겠어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요?”

국가대표 후보선수 C종목 전임감독의 말입니다.

운동선수는 하나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 수천수만 번 반복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한 단계 도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인권 관련 교육도 수천수만 번 반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현장도 어느 날 인권 침해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도약해 있겠지요.

## '멀티플레이어' 강요받는 지도자의 오늘



### 지도자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

현재 우리나라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는 학교 운동부, 프로 구단, 사설 업체 등에 소속되어 학생 선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은 학교의 장이나 시·도 교육청과 계약을 맺고, 프로 구단 및 사설 업체 소속 지도자들은 각각 구단 관련 장 및 사설 업체 대표와 계약을 맺습니다.

지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은 제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중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는 합니다. 2022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북, 경남, 광주,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 등 여덟 군데의 학교 운동부 전임 지도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인권살피미가 방문한 스포츠클럽 팀 지도자들 역시 구단 관련 장, 학교의 장이나 시·도 교육청, 사설 업체 등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지도자들의 계약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전임감독은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4년 단위 계약을 맺고 있으며, 코치는 아예 계약을 맺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듯 대다수 지도자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그 양태가 매우 복잡할뿐더러 우리나라 노동계 현실이나 법적 조항 등 따져 볼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공론의 장으로 넘기고, 여기서는 지도자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겪는 고충, 그로 인해 학생 선수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주목하겠습니다.

### 마음도 불안, 생활도 불안

현장에서 만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고용 불안’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 마음 편히 지도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지도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계약 만료일 하루이틀 전에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 지도자도 너무 많습

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을 앞두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생활도 불안합니다.

“프로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2년 전부터 지도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딸이 셋인데, 가족들은 타 도시에서 생활합니다. 가족들과 하루도 떨어지기 싫지만, 1년 계약직이다 보니 이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려와 터를 잡았는데 재계약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이 지도자는 현재 학생 선수들과 함께 합숙소에서 생활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으로 가서 딸들에게 ‘짧고 굵게’ 아빠 노릇을 합니다. 세 아이를 홀로 돌보는 아내에게는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다 보니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고민이 큼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 친구가 있는데, 선뜻 미래를 함께하자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요.”

이 지도자는 그래서 여자 친구와의 만남 자체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는 여자 친구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요.

자라나는 딸들을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아빠, 결혼하고 싶지만 선뜻 청혼할 수 없는 남자 친구. 인권살피미가 만난 지도자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인권살피미 활동 내용을 정리하던 중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 몇몇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궁금

한 내용을 물었더니 “저 그만됐어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지도자도 있고, 다른 일을 하게 됐다는 지도자도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12월, 날씨만큼이나 추운 통화였습니다.

### 더 강한 훈련, 더 심한 압박, 더 아픈 채찍의 바탕은 ‘고용 불안’

“계약 만료일 4~5개월 전부터는 제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온전히 쏟아야 하는데,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재계약이 가능할까? 다른 데 알아봐야 하나?’ 하면서요.”

어느 지도자가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지도자로 일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는 어느 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 가르치려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 좋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 ‘왜 그것도 못해!’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그날 밤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아이들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학생 선수들을 마음을 다해 가르친다는 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고용 불안’은 이렇듯 최선을 다하려는 지도자들의 눈을 돌리고 정신을 딴 데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선수들에게 돌아옵니다. 4~5개월이면 1년의 3분의 1 이상입니

다.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학생 선수들에게 1년의 3분의 1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입니다. 경기 승률이 얼마인지, 프로 입단시킨 학생 선수는 몇 명인지, 대회에 나가 메달을 가져왔는지 등등 학생 선수들의 성적은 곧 지도자들 재계약 여부의 척도가 됩니다. 이를 계약서에 노골적으로 명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성적에서 자유롭다는 지도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은 비교적 성적 압박감이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형의 압박까지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장에서 만난 한 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서에 ‘성적이 부진하면 다른 곳으로 전보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 불안감은 다른 지도자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종목 특성상 다른 곳으로 갈 만한 곳이 없기에 ‘전보’는 곧 ‘그만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학생 선수들의 경기 성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내면 일단 잘 가르쳤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연봉 협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재계약 여부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 영향은 다시 학생 선수들에게 미칩니다. 더 강한 훈련, 더 심한 압박, 더 아픈 채찍이 가해집니다.

## 지도자의 내일을 열어 줄 '표준계약서' 도입



### 멀티플레이어로 뛰는 또 하나의 '약자'

“재는 하는데 넌 왜 못 해?”

운전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되어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첫날, 팀 버스 운전을 해야 한다는 클럽 대표에게 못 하겠다고 말했다가 면박을 듣습니다. 지도자를 구할 때 1종 면허를 소지했는지를 체크하는 클럽 대표도 있다고 합니다.

기업 구단 산하 팀에는 대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구단 산하 팀이나 사설 형태로 운영하는 클럽의 팀 운전은 대부분 지도자 몫입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장에서도 지자체 지원이 있는 소수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도자가 운전을 해서 학생

선수들을 훈련장으로, 합숙소로, 식당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학교와 훈련장을 오가는 하루 2~3시간의 운전은 기본이고 장거리 대회에 참석할 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도자들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바로 운전이라고 합니다.

운전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진로와 관련해 고민하는 학생 선수의 고민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진로 문제는 그 학생의 평생이 달린 것이어서 가볍게 친구처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시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별 사정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기량이 오르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 하는 학생 선수에게는 상담사 역할도 해 줘야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해 줄 말이 많지만, 세대가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에 경험담만 늘어놓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책을 펼쳐 읽습니다. 답이 쉽게 찾아지지 않아 대학원에 들어가 아예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인권살피미가 만난 지도자 중에는 유독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공부하게 된 배경을 듣다 보니 애처롭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앞날을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살피는 일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 앞에는 온갖 잡다한 업무가 매일 산처럼 쌓입니다. 종목이나 속한 팀마다 그 종류는 다르지만, 과한 업무인 것은 모두 같습니다.



다양한 서류 작업이 필요한 행정 업무,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학생 선수들의 점호와 취침, 외출과 외박, 식사와 간식 체크 및 조달, 합숙소 건물 관리, 학부모 민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본연의 지도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한마디로 ‘멀티플레이어’가 되라고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대부분 과로와 탈진 직전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원형 탈모증이 생기기도 하고, 공황 장애를 앓기도 합니다. 실상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은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 역시 ‘약자’입니다.

### 아픈 각성이 만들어 낸 표준계약서, 그러나 배제된 지도자

지도자들을 원치 않는 멀티플레이어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계약서’입니다. 정확히 다시 표현하자면,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계약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이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노동 시간, 임금, 유급휴가,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021년 스포츠계에도 두 가지 표준계약서가 등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아픈 각성이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고통당하는 선수들에게 진즉 눈을 돌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운 만큼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 표준계약서는 선수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현장에서는 ‘운동선수와 지도자는 특수한 직종 종사자’라는 오래된 관행을 앞세워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령 정확하게 작성해 체결하더라도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살피미가 만난 지도자 중에는 구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인을 한 뒤 계약서를 보내 줬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도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수많은 잡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하리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잡무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참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지도 외의 잡무가 많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요? 월급하고 기간만 적혀 있던 것 같은데요?”

한 지도자는 계약서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알음알음 소개로 일을 하게 되어 계약서는 요식 행위라고 여긴 탓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대부분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노무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어린 시절부터 운동만 해 와서 세상 이치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0년 이상 열과 성을 다해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고 나서도 어이없게 퇴출당한 지도자들이 더 억울하게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기사가 신문지상을 오르내립니다. 인권 살피미가 만난 지도자 중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서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고, 유급휴가는커녕 주말 경기를 치르는 주는 일주일에 6일, 합숙소 당직인 날은 하루 24시간을 근무했는데도 그 끝에는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아닌, 허탈함과 분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딜레마에 빠진 스포츠 현장, 표준계약서 도입 절실

지도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다시 학생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코치님들 다 집에 가야 할 때는 우리끼리 합숙소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다 나가라고 해서 모텔에서 자요. 보통 토요일 오전 훈련 끝나고 점심 먹고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기 애매하거나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은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모텔에서 자요.”

미성년인 청소년들끼리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도자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옷어 주고 놀아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은 어린 딸에게 아빠 얼굴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빠를 몰라보면 안 되니까요.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할지도 모를 여자 친구에게 미안한 얼굴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미성년 청소년들끼리 모텔에 묵어서는 안 됩니다. 딜레마에 빠진 스포츠 현장의 오늘입니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지도자에게도 절실합니다. 스포츠 현장을 딜레마에서 빼내려면 우선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업무이고, 그에 대한 임금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길 시 고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겠는지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기간과 월급만 적어서 일방적으로 사인을 하거나 계약서 작성조차 하지 않은 채 운전기사, 상담사, 영양사, 건물 관리자 역할까지 떠맡긴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훌륭한 지도자, 성적 잘 내는 지도자, 프로 입단율과 진학률을 높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오가 응원해요!”



### 이 땅의 모든 ‘좋은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아이들이 잘해서이고  
지면 내가 잘못된 탓인 것 같다는 선생님,  
잘 가르치고 싶어 욕심을 부리다  
심한 말을 하고 밤새 잠을 못 이웠다는 선생님,  
팀 버스를 마련하기 위해 마흔일곱 군데 관광버스 회사에  
전화를 돌려 마침내 좋은 차를 구했다는 선생님,  
일주일 내내 합숙소에서 노심초사 아이들 걱정  
데이트도 못 한다는 선생님,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에게 먹일 간식 마련에  
마트까지 휘젓고 다닌다는 선생님,  
장거리 운전까지 기꺼이 맡아 하며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  
원형 탈모증과 공황 장애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쉬지 못하는 선생님,  
모든 운동의 기본인 달리기를 배우고 싶어 하면  
누구라도 기꺼이 가르치고 싶다는 선생님…….  
이 땅의 모든 ‘좋은 선생님’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에|필|로|그|

## 우리 모두 흙과 물과 바람과 햇별이 되어

###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

‘약간 쿵쿵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타트 라인에 섰던 2022년 인권살피미 활동이 마무리된 지금, 한편으로는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 것들이 어느 곳에서는 파릇파릇한 싹으로, 또 어느 곳에서는 연분홍 꽃봉오리로, 또 다른 어느 곳에서는 탐스러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 있는 모습을 분명 보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싹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이파리로, 꽃봉오리는 더없이 화려한 꽃으로, 탐스러운 꽃은 알찬 열매로 제각기 자라나고 피어나고 결실을 이룰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파릇파릇한 싹도 연분홍 꽃봉오리도 탐스러운 꽃도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다해야 보일 만큼 드문드문하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선수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잠깐의 시간이 아까워서둘러 훈련장으로 가서 공을 차고 싶어 할 만큼 운동에 대해 진심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줄린 눈과 피곤한 몸을 달래 가며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임했습니다. 간혹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은 분명하고도 확고했습니다.

지금의 학생 선수들이 제자들을 길러 낼 때쯤이면 ‘인권 침해’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고어가 될 수도 있겠다는, 바람 반 현실 반의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스포츠계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활동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유년기와 청년기를 맞아 가며 욕을 들어 가며 가혹하게 보내고 사회에 나왔는데, 그들을 맞이한 건 따가운 눈총과 힐난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마음속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위로해 주거나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공부하고 깨쳐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아픔을 주지 않으려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스포츠 인권 보호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

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이렇게 해 보자’, ‘그건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들니 좀 약하게 다시 만들자’, ‘너무한 거 같지만, 노력해 보자’ 등등 법적 조항으로 규정으로 제도로 장치를 만들고, 만들었다가 부수고 다시 만들고, 전혀 다른 형태를 새롭게 고민하는 등 분주하고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난한 과정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듯해서 매우 복잡하고 해결이 안 날 듯 보이지만, 유년의 아이가 청년이 될 때 꼭 거치는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우리 스포츠 인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도기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 운동화 끈 질끈 동여매고 다시 출발

무겁지만 또 한편 설레고 기쁜 지금, 다시금 운동화 끈을 조여야겠습니다.

운동에 진심과 열성을 다하고 싶지만 아직은 돌봄이 간절한 학생 선수들, 스스로 깨치며 공부하지만 아직은 좀 헤매고 있어 살핌이 필요한 지도자들, 보호 장치가 아직은 미칠 수 없는 구석구석을 운동화 끈 질끈 동여매고 다시 돌보고 살피고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파릇파릇한 싹이 가뭄에 죽어 버리지 않도록, 연분홍 꽃봉오리가 시들어 버리지 않도록, 탐스러운 꽃이 쭉정이가 돼 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흙과 물과 바람과 햇볕이 되어 줘야겠습니다.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적당한 바람과 물과 햇볕을 받으며

자라난 나무는 휘몰아치는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가뭄에도 끄떡 없습니다. 우리 학생 선수들이 그렇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데 지도자들이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큰 힘이 되어 주도록 우리 사회가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장벽도 이들 앞을 가로막지 않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떠들며 즐기고 웃기만 하는 행복한 스포츠 광장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김미영** 스포츠 인권 문제를 접하면서 운동할 때보다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을 작게나마 도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김석현** 서울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근무하는 현직 지도자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향후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



**김언혜**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 은퇴 후 체육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활동인데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만나 정말 좋았습니다. 인권살피미 활동은 인권 침해나 비리를 '적발'하는 기능도 있지만 '예방' 효과도 크기에 더욱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영**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면서 '운동선수는 행복할 때 성적이 가장 잘 나온다'는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선수들의 고충을 듣고 응원해 주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한했습니다. 더 많은 선수가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김지혁** 아픔을 겪는 학생 선수들을 만나면서 인권살피미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 도움을 청하는 학생 선수들의 작은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큰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행복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권 옹호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훈** 2021년에는 경기 중 활동이 주를 이뤘는데, 2022년에는 훈련 중에 인권살피미 활동이 진행되어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 관계자와 더 가까워져 좋았습니다.



**김태강**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출신으로 현재는 경기도 OO중 학교에서 운동부를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학생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 섭섭합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디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길 바랍니다. 활동하면서 저 또한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더 나은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준** 펜싱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후배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도자와 선수 모두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나름의 고충,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배지영**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현재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스포츠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의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배진희** 체육 교육 종사자입니다. 평소 활동 중인 종목 외의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우리 모두의 애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은덕**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여전한 현장이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꽃을 피우는 모습도 분명해 보여 기뻐했습니다.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 행복하게 운동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욱** 2022년은 스포츠인들에게 올바른 스포츠 윤리 가치관을 공유해 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염지현** 처음 보는 선수와 지도자의 고충을 어떻게 하면 친구처럼 자연스레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에 맞는 방법을 터득하고, 소통에도 스킬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친구처럼 고민을 들어 주는 인권살피미가 되고 싶습니다.



**오택식** 1박2일간의 짧은 활동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믿고 의지할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하면서 저 또한 성장했습니다.



**윤양숙** 인권살피미 활동을 위해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사회 초년생 마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분들과 교류해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완숙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중성** 5년째 스포츠 윤리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인권살피미 활동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 선수 출신 전문 스포츠인으로서 현장에서 후배 선수들을 직접 만나 인권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조** 스포츠인의 인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와 올바른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삶이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기돈** 스포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인권살피미 활동을 더욱 확장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임다연** 현장의 스포츠인으로서, 관련 전공 연구자로서 인권살피미 활동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스포츠 현장의 인권 의식 확립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수 있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임상아** 은퇴 선수로서 다양한 종목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선수와 지도자의 권리 존중과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영신** 체육 분야를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노력과 관심이 이어져 체육계 안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낯선 표현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임채범** 인권살피미 활동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선수들 인권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듯싶습니다.



**장권수**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환경의 선수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적 지원이 열악하거나 열외의 팀과 종목으로 저변을 넓혀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선웅** 스포츠 인권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아직도 인권 문제가 많고 인권 활동가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에 대한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스포츠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종일** 현장에 나가 많은 지도자 및 선수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포츠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권살피미 활동이 아니라면 가 보지 못할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진** 내부적으로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선수와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만남의 자리를 갖나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더 많은 선수와 지도자를 만날 날을 기다려 봅니다.

## 모두 함께 걸어온 스포츠 인권의 오늘과 내일

인쇄 | 2022년 12월 20일

발행 | 2022년 12월 29일

발행인 | 이은정(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발행처 | 스포츠윤리센터

주소 |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연락처 | 전화 1670-2876, 팩스 02-6220-1377

홈페이지 | [www.k-sec.or.kr](http://www.k-sec.or.kr)

집필·편집 | 신윤덕(프리랜서 편집자)

인쇄 | (주)캡스톤그룹

ISBN | 979-11-981372-0-3 93690

• 이 책의 저작권은 스포츠윤리센터와 집필자 공동 소유이므로 부분 혹은 전체를 이용할 때는 스포츠윤리센터와 집필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  
행복하게 운동하고 가르치는  
스포츠 현장을 위해!